



2003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해외 홍보활동 본격가동

김준철 회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11월4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2003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의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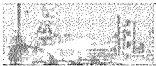
이번 행사의 목적은 그 동안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통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전기관련단체를 중심으로 「SIEF 2003」을 적극 홍보하여 이들 국가의 관련업체 및 바이어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방문지는 일본 → 필리핀 → 대만 → 말레이시아 → 중국으로 우리 중전기기 수출시장의 60.8%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순회설명회는 본회 김준철 회장이 직접 참여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수출판로 개척 등 사업의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아울러 2004년에 PennWell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가칭) SIEF&POWER-KOREA 2004”의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SIEF를 세계각지의 국제전시회로서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3·19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방전기·전자공업협회(PESA) 및 필리핀 전기산업협회(PAEII) 관계자들과의 설명회 이후, 양국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준철 회장을 비롯한 Mr, Leonardo Chua(PAEII) 회장, Mr, Robinson T.Tang(PESA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필리핀 중전업체의 지속적인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문의: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제2기 중전기기 협력위원회」 출범

진흥회는 지난 3월 6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 효성, LG산전, 선도전기 등 8개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본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중전기기 협력위원회」로 변경하여, 제2기 중전기기 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2001년 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한전 민영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업계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향후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회사와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전력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6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전기기 업계의 많은 현안문제 해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본회 김준철 회장은 제2기 위원의 위촉장을 수여한뒤 격려사를 통해 전체 중전기기 업계의 고충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세일즈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해 줄 것과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였다.

(문의: 사업지원실 기술진흥팀)



중소기업은행,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취급은행으로 추가선정

진 흥회는 지난 3월 13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진흥회 및 중소기업은행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취급은행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중소기업체의 담보여력 부족 등 대내외적인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동 기금의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기금 취급은행을 한미은행 외에 중소기업은행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향후 용자사업자의 용자 대출기관 선택폭이 한층 넓어져 기술개발의 활성화 및 기금 분산 예치로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기하게 되었다.

(문의: 사업지원실 기술진흥팀)



「2003년 제1차 PL기초과정교육」 실시

진 흥회는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한국전기시험연구소(경기도 의왕)에서 전기업체 임직원 21개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1차 PL기초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은 PL대책 추진능력배양 및 전기기기 사고시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부문 PL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추진되는 교육사업으로 진흥회는 올해 4차(1회당 8시간)에 거쳐 실시되며 2003년도에 총 100여명의 전기기기 PL 기초과정 교육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PL 상담센터)